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의 언어 반응이 상담효율성 평정에 미치는 영향

신혜경·이영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이러한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상호작용을 하여 상담효율성 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상담을 원하는 한국의 청년들(18-25세) 180명이 피험자로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연구자가 제작한 문제귀인검사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내부-내부, 외부-내부, 외부-외부의 양식에 분류되었다. 피험자들은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처치된(지시적,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으로) 모의 상담의 녹음테이프를 들은 후, 상담효율성을 평정하였다. 상담효율성의 평정을 위하여서는 상담자평정척도(CRF-S)와 상담회기평정척도(SEQ)가 사용되었다. 총 117명의 피험자 자료가 변량분석을 사용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내담자는 내부-내부, 외부-내부, 외부-외부 귀인양식순으로 상담자와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을 높게 하여, 문제귀인양식이 상담효율성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상호작용을 하여 상담효율성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자와 상담회기의 하위 차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상담자에 대한 호감성과 상담회기의 긍정적 정서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지시적 반응보다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에서 상담효율성을 더 높게 평정하였다. 외부-내부 집단과 외부-외부 집단은 여러 차원들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차이를 보이는 차원들에서는 대체로 절충적 반응에서 상담효율성을 더 높게 평정하였다. 물론 이들 집단들은 상담자의 호감성 차원에서는 비지시적 반응에서, 외부-내부 집단은 상담회기의 긍정적 정서에서, 외부-외부 집단은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 절충적 반응과 지시적 반응이 모두 효과적임을 보고하여 차원별로 상담자 언어반응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내부지향적인 귀인을 하는 상담자들이 외부지향적 귀인을 하는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귀인양식 차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효율성의 하위차원별로 상담자가 언어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지난 20년 동안 개인의 귀인성향이나 통제적 신념이 성격이나 성취동기, 적응 및 문제해결의 전략 등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온 이래(Phares, 1976; Lefcourt, 1982), 상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귀인성향 및 내외통제성과 상담과정, 또는

상담효과의 관련성을 탐색내지는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또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효율성의 관계는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조명되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효율성의 관계를 직접 규명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이

론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나(Sue, 1981a ; Brickman et al, 1982), 이러한 연구들의 근간이 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귀인성향, 또는 통제적 신념과 상담과정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제귀인양식과 상담효율성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Atkinson, Winzelberg, 그리고 Holland(1985)는 상담자가 문제의 초점을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두느냐에 따라 어떤 내담자들은 상담자에 대한 신빙성에 차이를 둔다고 하였으며, Murdock 과 Fremont(1989)는 상담자의 문제귀인성향이 상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이나 방향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은 상담자의 인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유사할 때, 혹은 유사하지 않을 때, 상담효율성의 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다. 예를 들면, Butcher와 Hebert(1985)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내외 통제성 유사성과 비유사성이 상담자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를 내외통제성의 특성이 유사하게, 혹은 유사하지 않게 짝짓기하여 10주간의 상담을 실시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내외통제성의 유사성이 비유사성보다 상담자평정에 더 긍정적인, 또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Foon(1986)은 내담자는 자신과 동일한 통제적 신념을 지닌 상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이 잘 되리란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의 Tracey(1988)의 연구는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문제원인에 대한 귀인이 상담자의 그것과 일치할 때가 불일치할 때보다 상담관계가 더 잘 형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원인귀인의 일치가 효율적인 상담의 지표가 된다고 하여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귀인성향의 유사성이 상담효율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귀인성향이나 통제적 신념의 유사성이 상담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상담자와 내담

자의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에 대한 관점이 상담효율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해 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지적 유사성에 관한 상반된 주장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이 상담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arr, 1970 ; McLachlan, 1974)과 그러한 유사성은 상담효과를 예언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Lesser, 1961), 오히려 비유사성이 상담효율성에 더 긍정적 변인이 된다는 주장(Edward & Edgerly, 1970 ; Landfield, 1971)이다. 전자는 초기의 상담관계 형성에서 내담자에게 상담자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상담의 궁극적 목표가 내담자의 인지구조나 행동의 변화라고 할 때,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는 자신의 인지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므로 비유사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담자가 상담자가 지향하는 새로운 인지적 특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귀인성향이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내담자들이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하였다(Liberman, 1978 ; Chambliss & Murray, 1979). 그러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내담자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외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치료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연구들(Barefoot & Girodo, 1972 ; Rodin & Langer, 1980)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문제의 원인을 외적인 것에 두는 것은 상담효과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들(Bootzin, Herman, & Nicassio, 1976 ; Chambliss & Murray, 1979)이 있다. 이에 대해 Brickman 등(1982)은 문제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 내담자

를 안심시켜 줄 수 있지만, 그러한 귀인성향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내담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내담자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귀인보다는 해결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 내부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상담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rickman 등(1982)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든가, 외부로 돌리든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해결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내담자의 이러한 내부지향적 귀인성향은 상담자나 상담기법들의 내부지향성보다 더 영향력있는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내담자의 내부지향적인 귀인성향은 바로 상담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향이다. 대부분의 상담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변화의 힘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인지적 성향이나 상담개입은 내담자의 내적 통제성을 강조하고, 또 지향한다(Bugental, 1978; Archer, Beddell, & Amuso, 1980; Connolly, 1980; Stensrud & Stensrud, 1981). 따라서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내적 통제성을 증가시키면서 내담자의 내적 통제성과 효율적인 상담결과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일치한 귀인성향을 보이는 것이 상담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며,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내적통제의 귀인성향을 보이는 것이 상담과정이나 상담목표에 효과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Sue(1978a, 1978b)는 이러한 내용들을 문제상황에 대한 세계관과 관련지어 이론화 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세계관 양식 중 상담자들은 대부분 원인과 해결에 대한 귀인을 내부로 하는 내부원인-내부해결의 세계관 양식을 보여 주기 때문에 세계관이 서로 다른 내담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한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문제에 대해서로 다른 귀인양식을 갖는 것은 공감적 이해와 같

은 중요한 관계형성 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한 신뢰성이란가 호감성에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Sue, 1981a). 특히 문제의 원인과 해결 모두에서 상담자와 다른 세계관을 보이는 경우, 즉 외부원인-외부해결의 양식을 지닌 내담자들은 상담관계형성에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Sue의 이러한 견해는 해결귀인의 내부지향성이 상담의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Brickman 등의 주장과 관련시켜 볼 때, 해결귀인에 있어서 내적인 귀인성향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 즉 내부원인-내부해결, 외부원인-내부해결의 양식을 보이는 내담자들은 외적인 귀인성향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 즉 내부원인-외부해결, 외부원인-외부해결의 양식을 보이는 내담자들보다 상담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더 효율성을 보이게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내부 귀인성향을 보이는 상담자와의 인지적 특성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상담목표나 상담과정의 기저에 있는 내부지향적 가치가 내담자들의 세계관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나 상담과정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세계관 양식을 보이는 내담자들은 상담자나 상담시간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으로 상담을 조기종결하거나, 상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데, 내담자들의 조기종결이나 상담 직후에 갖는 불만은 모두 상담효율성의 한 지표가 된다(Tracey, 1986).

또 Sue(1978b)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세계관양식이나 이들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같은 상담의 기법들도 세계관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해 내부로 귀인하는 내담자는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비지시적일 때 상담자에 대해서나 상담과정에 대해서 좋게 평정을 하며, 외부로 귀인하는 내담자는 지시적일 때 더 좋게 평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백인 중산층의 문화가 주도적인 미국사회에서 문화가 다른 소수민족이나 소외집단의 내담자들이 갖는 문화적 정체감은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지시적이냐, 비지시적이냐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영향을 다르게 미친다고 한 연구들(Atkinson et al, 1978 : Ponce & Atkinson, 1989)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Sue(1975)가 유형화 한 세계관은 미국사회에서 피주도적 문화권의 개인들이 갖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감에 따라 보이게 되는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tkinson 등(1978)은 외부원인-내부해결의 양식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계 미국인 내담자들은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비지시적일 때보다 지시적일 때 상담자를 더 신뢰롭게 평정한다고 하였다. 또 Ponce Atkinson (1989)은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인 멕시코인들 중,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를 동일시 하는 집단의 경우(주로 내부원인-내부해결의 양식을 갖는)는 상담자가 비지시적 언어반응을 사용할 때 상담자를 더 선호하며, 백인 중산층의 문화적 가치를 동일시 하지 않는 경우는 지시적 언어반응을 하는 상담자를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Ivey (1977)는 문화적 정체감에 따른 차이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의 언어반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사회에서 외부원인-내부해결의 문제귀인양식을 갖도록 훈련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흑인상담자들은 대체로 지시적 언어반응을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이 관계가 있음을 밝히는 물론, 외부원인-내부해결의 내담자들이 상담자의 지시적 언어반응을 선호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 본 내용들을 요약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 특히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영향을 주며, 상담시간에 대한 평정이나 상담이 끝난 후의 느낌 등과 같은 상담회기의 평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 상담자의 지시적, 또는 비지시적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다르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들은 Sue (1978a, 1978b, 1981a)의 지적처럼 아직은 이론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들도 탐색의 단계에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이, 또는 이러한 귀인양식이 상담자 언어반응양식과 상호작용하여 상담효율성의 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선행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Sue, 1978a, 1978b, 1981a : Brickman et. al, 1982 : Liberman, 1978 : Barefoot et. al, 1972 : Tracey, 1986, 1988)에 비추어 설정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내담자의 상담효율성 평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1-2)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상담자의 언어반응양식에 따라 상담효율성 평정에 영향을 다르게 미칠 것이다.

(가설2-1)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양식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2)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양식에 따라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3) 및 실험 처치된 상담자의 언어반응(3)을 독립변인으로 한 3×3의 무선요인설계이며, 상담효율성에 대한 평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이 연구의 예비연구결과에 따라 분류되었다.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을 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내부-내부의 귀인양식과 외부-내부의 귀인양

식, 그리고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에 분포되어,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위의 세가지 양식으로 설정하였다. 상담자의 언어반응은 지시적,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의 세가지 양식으로 설정하였다. 또 종속변인인 상담효율성의 평정은 내담자의 상담자와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으로 측정하였다.

1. 피험자

피험자들은 <예비연구>에서 문제귀인검사 실시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내담자들 중 내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과 외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 그리고 외부-외부의 문제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로서 각각 60~80명씩 전체적으로는 200여명 정도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전화와 직접 면담을 통해 실험참여의 동의를 구하였다. 내담자들은 대부분 실험에 동의하였는데 연구자가 인원수가 가장 적은 외부-외부 귀인양식의 내담자 수에 맞추기 위해 문제귀인양식별로 각 60명씩, 180명을 우선표집 하였다. 표집된 내담자들은 실험처지인 상담자 언어반응, 즉 지시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통제변인으로 설정됨)에 각 20명씩 우선 배정되었는데, 실험결과 실제로 자료로 분석된 내담자들은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이 각 처치별로 17명씩 51명이며,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이 각 처치별로 11명씩 33명이다. 또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집단이 각 처치별로 11명씩 33명이다. 실험처치에 배정된 각 20명 중 17명, 11명, 또 11명만이 분석에 사용된 이유는 나머지 내담자들이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제외된 내담자 수가 가장 많은 처치집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이 된 내담자들은 117명이다.

2. 도구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모두 세가지이다. 먼저 일반적인 상담장면의 연출과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해 실험처치를 가한 상담장면 대본을 제작하였으며, 상담효율성 평가를 위해 이미 제작된 상담자 평정척도(CRF-S)와 상담회기 평정척도

(SEQ)를 사용하였다.

상담장면대본은 실제 상담장면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내담자 문제와 상담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상담대본을 제작하기 위해서 5명의 상담자에게 10명의 내담자들을 각각 2명씩 배정하고, 각각 5회의 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상담은 어떠한 처치도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초기상담 또는 상담의 전반부로 볼 수 있는 5회까지의 상담내용을 상담대본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담이 진행될수록 상담개입의 여러 효과로 인해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같은 인지적 구조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석하고자 한 5회까지의 상담 이후에도 상담자와 내담자의 합의하에 본 연구와 관계없이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 총 횟수는 41회이다. 41회의 상담이 녹음된 테이프는 풀어서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축어록을 기초로 대본을 완성하였다. 상담대본은 상담내용은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의 반응도 실제상담의 축어록에서 나온 표현들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상담자의 반응은 축어록의 상담자 반응들을 상담내용의 문맥상 통하지 않는 단어만 바꾼 채, 대부분의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상담장면 대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상담내용은 청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이상과 현실간의 가치갈등, 대인관계 문제, 성격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구성되었다. 상담자 반응은 문제원인과 해결에 대한 책임을 개인적 요소에 두고자 하는 반응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모두 대부분의 실제 상담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한 처치는 상담자 언어반응을 지시적 반응양식(directive response style : DR), 비지시적 반응양식(nondirective response style : NDR),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절충적 반응양식(eclectic response style : ER)의 세가지 처치이다. 이론적 근거에 따라 지시적 반응은 “충고”, “제안”, “정보수집 및 제공”, “해석” 등의 반응을 포함하고, 비지시적 반응은 주로 감정의 “반영”, “요약”, “부연설명”, “안심”, “재언

급” 등의 반응을 포함한다. 절충적 반응은 이러한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상담자 언어반응은 상담과정의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 52개의 상담자 언어반응 중 12개의 반응에만 실험처치를 하였다. 나머지 반응들은 주로 내담자의 다음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이 주를 이루나, 그렇지 않은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지시적인 반응들과 비지시적인 반응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대로 제시하였다.

처치가 가해진 12개의 상담자 언어반응에 대한 타당성은 내사람의 상담자에 의해 평정되었다. 이들에게는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의 처치가 가해진 상담대본을 제시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하는 방법은 대본과 함께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반응유목들을 제시하여 대본의 처치된 반응들이 반응유목 중 어느 것인지, 혹은 어느 것과 가장 근접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세사람의 평정자간에는 .75의 일치율을 보여 주었다.

상담대본의 녹음은 여성상담자가 상담자 역할을 맡았으며, 여대2학년 여학생이 내담자 역할을 해 주었다. 녹음은 한 자리의 동일한 시간대에 각 처치별로 세차례에 걸쳐 하였으며, 상담자 언어반응이 처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반응 바로 전에 “딩동”하는 소리를 삽입하여 편집하였다. 이는 실험처치에 대해 내담자의 주의를 끌고자 취한 조치이다. 상담대본의 녹음에는 각 처치별로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상담자 평정척도는 Barak와 LaCross(1975)가 개발한 상담자 평정도구를 Corrigan과 Schmidt(1983)가 문항수를 줄인 축소형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오경희(1986)가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성, 전문성, 신뢰성의 세 차원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을 평정하도록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회기에 대한 평가는 Stiles와 Snow(1984)

가 개발한 평가 질문지를 최윤미(1987)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윤미의 한국어로 제작된 상담회기 평가질문지는 회기의 깊이(depth), 순조로움(smoothness)과 같이 회기자체에 대한 평가 차원들과 긍정적 정서(positivity)와 같이 상담직후의 정서상태에 대한 평가 차원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절차

실험동의를 구한, 문제귀인양식별로 분류된 내담자들에 대해 무선적으로 표집을 하고 표집된 내담자들을 상담자 언어반응이라는 실험처치에 따라 배정하였다. 배정된 내담자들은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실험처치를 받았다. 구체적인 실험은 연구자가 지시문을 읽어 주고 녹음된 상담대본을 들려 준 다음, 상담자평정지와 상담회기평정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의 소집단에서 50~60분 정도였다. 실험은 소집단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전체 실험실시 기간은 1990년 1월~1990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4. 자료처리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검증을 위한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과 사후검증(post hoc)을 하였다.

변량분석은 종속변인인 상담자 평정과 상담회기 평정이 각각의 하위차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종속변인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변인 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 언어반응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두개의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 사후검증으로는 Duncan의 중다범위검증법(multiple-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가설1의 검증

〈가설1〉은 상담효율성을 상담자에 대한 평정과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의 두가지로 봄에 따라 이들 각각에 대한 (가설1-1)과 (가설1-2)의 하위 가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설1-1)의 검증을 위해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다변인 변량분석을 하였는데, 투입된 변인들이 다변인변량분석의 기본가정, 독립변인의 동변량성과 종속변인들의 상호상관관계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독립변인의 동변량성과 종속변인의 상호상관성은 인정되었다 (Box's $M=16.90$ $P=.321$, Bartlett's $=11.56$ $P=.000$).

다변인변량분석의 결과는 〈표1〉에 제시되었다. 〈표1〉을 보면,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 수준 $p<.001$). 종속변인들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여러 종속변인들 중 어느 변인에 기인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하위변인에 대한 변량분석인 Univariate F test의 결과를 보면, 상담자 특성의 모든 차원에서 유의 수준 $p<.001$ 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 주어 하위차원들 모두가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들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2〉이다. 〈표2〉에서 보면, 상담자에 대한 평정은 각각의 차원에서 모두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가 외부-내부,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외부-내부,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순으로 높은 평정점수를 보여 주었다. 특기할 것은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의 신뢰성 차원에 대한 평정점수가 모든 귀인양식집단들의 평정점수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 집단의 평균점수차이가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 지를 알아 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집단만 〈표3〉에 제시하였다. 검증의 유의도는 $p<.05$ 수준으로 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집단간에는 호감성 차원에서의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과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만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차원들에서는 모든 집단들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담자는 전문성과 신뢰성과 같은 상담자 특성들에 대해서 내부-내부 귀인양식, 외부-내부 귀인양식, 외부-외부 귀인양식의 인지적 특성 순위

〈표 1〉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다변인 변량분석

종속변인 상담자 평정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otellings(유의도)
	Hyp.Ms	Err.Ms	F	
호감성	6.13	.50	12.30(.000)	23.41(.000)
전문성	8.07	.37	21.78(.000)	
신뢰성	19.03	.31	59.84(.000)	

〈표 2〉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평정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 상담자 평정	내부-내부 M(SD)	외부-내부 M(SD)	외부-외부 M(SD)
호감성	5.92(.67)	5.44(.66)	5.16(.80)
전문성	6.21(.44)	5.73(.44)	5.34(.91)
신뢰성	6.18(.55)	5.47(.50)	4.81(.65)

〈표 3〉 내담자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사후검증

상담자 평정	문제귀인양식	집단간 동질성 여부
호감성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전문성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외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신뢰성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외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표 4〉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다변인 변량분석

종속변인 상담회기 평정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otellings(유의도)
	Hyp.Ms	Err.Ms	F	
순조로움	9.36	.56	16.85(.000)	12.16(.000)
깊이	10.25	.50	20.55(.000)	
긍정적 정서	11.90	.37	31.85(.000)	

〈표 5〉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회기 평정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 상담회기 평정	내부-내부 M(SD)	외부-내부 M(SD)	외부-외부 M(SD)
순조로움	5.66(.70)	5.37(.71)	4.70(.84)
깊이	6.11(.61)	5.68(.51)	5.10(.96)
긍정적 정서	5.88(.53)	5.35(.56)	4.79(.76)

별로 높게 평정하고 있고, 호감성 차원에서는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과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집단간에 비록 차이가 없지만 이들 집단들보다는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이 유의미하게 호감성에 대한 평정을 더 높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자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가설1-1)은 긍정되었다.

(가설1-2)의 검증은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회기의 평정 차이를 보는 것인데, 차이검증을 하기 위해 역시 다변인변량분석을 하였다. 투입된 변인들이 다변인 변량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과 독립변인의 동변량성이 입증되었으며, 종속변인들의 상호

상관성을 인정하였다(Box's $M=18.43$ $P=.108$, Bartlett= 74.07 , $P=.000$). 따라서 다변인 변량분석의 기본 가정들은 충족되었다.

다변인변량분석의 결과가 〈표4〉에 제시되었다. 〈표4〉에서 보면,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은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수준 $p<.001$). 이러한 차이를 각각의 하위종속변인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면, Univariate F test 결과는 하위종속변인들에 있어서도 유의 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즉 상담회기의 하위차원인 순조로움과, 깊이, 긍정적 정서 모두에서 집단간의 평정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5〉는 이들 집단의 상담회기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집단간의 차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표5〉에서 각 집단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상담회기의 모든 차원에서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고,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이 가장 낮은 평정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평균점수의 차이가 각 집단간에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한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모든 차원들에서 각각의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귀인양식 집단간에 상담회기의 차원들에 대한 평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1-2)를 긍정하였다.

2.가설 2의 검증

〈가설2〉는 두 개의 하위가설, 즉 내담자의 문제 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의 상호작용에 따라 상담자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사설2-1)과 상담회기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2-2)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상담자와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에 있어서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이 상호작용효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7〉과 〈표8〉은 내담자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의 상호작용효과를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7〉과 〈표8〉에서 보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상호작용효과는 상담자의 호감성차원과 상담회기의 순조로움 차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원들에서 보여 주어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다르게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표7〉과 〈표8〉에서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뿐만 아니라 상담자 언어반응의 주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상담자 언어반응 자체도 영향력있는 독립변인으로 간주되지만,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가설2-1)의 검증을 위해서는 다변인변량분석을 하였는데, 먼저 투입된 변인들이 다변인변량분석의 기본가정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인의 동변량성은 $p < .01$ 의 유의수준에서 인정되었으며 (내부-내부 집단 $Boxs M = 28.08 P = .013$, $Boxs M = 15.16 P = .374$, 외부-외부 집단 $Boxs M = 21.87 P = .098$), 종속변인의 상호상관성은 내부-내부 귀인양식 집단에서만 인정되었다 ($Bartlett = 19.85 P = .000$). 외부-내부와 외부-외부 집단의 경우 종속변인들이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Bartlett = 7.46 P = .059$, $Bartlett = 7.26 P = .064$).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 언어반응에

〈표 6〉 내담자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사후검증

상담회기 평정	문제귀인양식	집단간 동질성 여부
순조로움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외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깊이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외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긍정적 정서	내부-내부, 외부-내부	이질적 집단
	내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외부-내부, 외부-외부	이질적 집단

〈표 7〉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의 상담자 평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유의도)
호감성	문제귀인양식(A)	12.26	2	6.13	19.49(.000)
	언어반응(B)	22.31	2	11.15	35.45(.000)
	A×B	2.44	4	.61	.42(.796)
전문성	문제귀인양식(A)	16.13	2	8.07	33.00(.000)
	언어반응(B)	4.14	2	2.07	8.46(.000)
	A×B	11.69	4	2.92	11.95(.000)
신뢰성	문제귀인양식(A)	38.07	2	19.03	64.13(.000)
	언어반응(B)	1.26	2	.63	2.13(.000)
	A×B	2.95	4	.74	2.48(.048)

〈표 8〉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의 상담회기 평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량원	SS	df	MS	F(유의도)
순조로움	문제귀인양식(A)	18.72	2	9.36	17.98(.000)
	언어반응(B)	5.49	2	2.75	5.27(.007)
	A×B	1.59	4	.40	.77(.550)
깊이	문제귀인양식(A)	20.49	2	10.25	26.87(.000)
	언어반응(B)	9.33	2	4.67	12.23(.000)
	A×B	6.32	4	1.58	4.14(.004)
긍정적정서	문제귀인양식(A)	23.81	2	11.90	50.32(.000)
	언어반응(B)	8.30	2	4.15	17.54(.000)
	A×B	8.76	4	2.19	9.26(.000)

다른 상담자 평정의 차이를 보기 위해 다변인변량 분석을 한 결과가 〈표9〉에 제시되었다. 〈표9〉에서 보면, 모든 문제귀인양식집단들은 집단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자 평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외부-내부와 외부-외부 귀인양식 집단의 경우는 종속변인들간의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단일변량분석의 결과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각 집단별로 하위종속변인들에 대한 차이검증의 결과를 보면, 내부-내부 귀인양식 집단은 호감성 차원에서만 $p<.001$ 의 유의수준으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내부-내부 귀인양식 집단의 경우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차이가 상담자에 대한 호감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부-내부 집단은 동변량성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은 호감성과 신뢰성의 차원에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유의수준 $p<.001$). 또 외부-외부 귀인양식 집단은 호감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차원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0〉에서 보면, 모든 귀인양식 집단들이 호감성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비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 지시적 반응순으로 높은 평점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호감성 차

〈표 9〉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반응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다변인 변량분석

문제귀인양식	상담자 평정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yp.Ms	Err.Ms	F(유의도)	Hotellings(유의도)
내부-내부	호감성	5.27	.25	21.47(.000)	7.62(.000)
	전문성	.22	.19	1.19(.321)	
	신뢰성	.43	.29	1.47(.240)	
외부-내부	호감성	1.93	.33	5.87(.007)	6.55(.000)
	전문성	.51	.17	3.02(.064)	
	신뢰성	1.25	.18	6.87(.003)	
외부-외부	호감성	4.21	.41	10.26(.000)	14.51(.000)
	전문성	7.18	.41	17.49(.000)	
	신뢰성	.42	.42	1.01(.376)	

〈표 10〉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반응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제귀인양식	상담자 언어반응	상담자 평정		
		호감성	전문성	신뢰성
내부-내부	지시적 M(SD)	5.29(.40)	6.15(.55)	6.04(.67)
	비지시적 M(SD)	6.37(.38)	6.34(.32)	6.35(.51)
	절충적 M(SD)	6.09(.66)	6.13(.41)	6.13(.41)
외부-내부	지시적 M(SD)	4.98(.59)	5.73(.48)	5.39(.32)
	비지시적 M(SD)	5.80(.61)	5.52(.33)	5.18(.57)
	절충적 M(SD)	5.55(.52)	5.95(.42)	5.84(.34)
외부-외부	지시적 M(SD)	4.45(.47)	5.82(.71)	4.77(.73)
	비지시적 M(SD)	5.61(.69)	4.39(.62)	4.64(.71)
	절충적 M(SD)	5.41(.73)	5.75(.59)	5.02(.47)

원에서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의 상호 작용효과가 없었던, 앞서의 이원변량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신뢰성 차원에서 절충적 반응, 지시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순으로 상담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평정하였다. 또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은 전문성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 순으로 높은 평정점수를 나타내어 차이를 보여 주었다.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각 문제귀인양식 집단별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상담자 평정 차원들에 대해, 이러한 차이가 각각의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지를 알아 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사후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11-a〉와 〈표11-b〉, 〈표11-c〉에 제시되었다. 이들 표에서 보면, 모든 문제귀인양식 집단은 상담자의 호감성 차원에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이 동질집단으로 판명되었고, 이들과 지시적 반응간에는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어 이질적 집단임을 드러냈다.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호감성 차원 이외에 신뢰성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간에는 동질집단임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집단은 각각 절충적 반응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표11-b〉참조). 또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은 호감성 차원 이외에 전문성 차원

에서 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간에 동질집단으로 판명되었고, 이들 집단은 비지시적 반응집단과는 이질적 집단임이 밝혀졌다(〈표11-c〉참조).

〈표 11-a〉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 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사후 검증(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

상담자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호감성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표 11-b〉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사후 검증(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

상담자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호감성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신뢰성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표 11-c〉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의 사후 검증(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

상담자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호감성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전문성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내담자는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자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가설 2-1)은 모든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의 호감성 차원에서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외부-내부 집단이 신뢰성에서, 외부-외부 집단이 전문성에서 차이를 보인 이외에 다른 차원에서는 문제귀인양식별로 언어반응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분적으로 긍정 되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차원들에 대해서는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 호감성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보다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에서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다. 외부-내부, 외부-외부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은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이 호감성 차원에서는 오히려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일때가 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나타내었고, 신뢰성 차원에서 절충적 반응일때가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집단은 호감성 차원에서는 역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에서 지시적 반응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전문성 차원에서만 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일때가 비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다.

(가설2-2)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양식에 따라 상담회기 평정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것인데, 문제귀인양식별로 세가지 언어반응 처치를 하여 처치집단별 상담회기 평정점수의 차이를 다변인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변인변량분석을 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이 다변인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변인변량분석을 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이 다변인변량분석의 기본가정들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인의 동변량성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수준 $P < .01$ 로 모두 인정되었으며(내부-내부 집단 $Boxs M = 17.92 P = .023$, 외부-내부 집단 $Boxs M = 17.41 P = .025$, 외부-외부 집단 $Boxs M = 12.75 P = .052$), 종속변인의 상호상관성은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에서만 상호독립적으로 나타나(Bartlett = 5.26 $P = .154$) 부분적으로 충족되었다.

상담회기 평정의 차이를 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한 결과가 〈표12〉에 제시되었다. 〈표12〉를 보면, 모든 귀인양식집단은 집단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회기 평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집단의 경우는 종속변인들간의 상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12〉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반응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다변인 변량분석

문제귀인 양식	상담회기 평정	Univariate F test			Multivariate F test
		Hyp.Ms	Err.Ms	F(유의도)	Hotellings(유의도)
내부-내부	순조로움	.89	.47	1.89(.162)	2.59(.023)
	깊이	.14	.38	.36(.702)	
	긍정적정서	1.08	.25	4.33(.019)	
외부-내부	순조로움	.30	.52	.58(.566)	3.78(.003)
	깊이	1.22	.20	6.08(.006)	
	긍정적정서	1.66	.22	7.56(.002)	
외부-외부	순조로움	2.35	.60	3.89(.031)	12.75(.000)
	깊이	6.46	.56	11.62(.000)	
	긍정적정서	5.78	.23	24.95(.000)	

〈표 13〉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반응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평균 및 표준편차

문제귀인 양식	상담자 언어반응	상담회기평정		
		순조로움	깊이	긍정적 정서
내부-내부	지시적 M(SD)	5.40(.55)	6.09(.63)	5.59(.41)
	비지시적 M(SD)	5.49(.85)	6.04(.69)	6.00(.68)
	절충적 M(SD)	5.74(.63)	6.21(.54)	6.05(.48)
외부-내부	지시적 M(SD)	5.22(.53)	5.00(.35)	5.44(.43)
	비지시적 M(SD)	5.35(.89)	5.31(.58)	4.93(.52)
	절충적 M(SD)	5.55(.69)	5.94(.39)	5.69(.45)
외부-외부	지시적 M(SD)	4.16(.75)	5.31(.64)	4.91(.68)
	비지시적 M(SD)	4.95(.82)	4.25(.97)	4.82(.32)
	절충적 M(SD)	4.98(.76)	5.75(.57)	5.45(.36)

하위종속변인들에 대한 각각의 단일변량분석의 결과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 각각의 단일변량분석 결과를 보면,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긍정적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유의수준 $p < .05$),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깊이와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의수준 $p < .01$). 또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은 모든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의수준 $p < .05$, $p < .001$).

하위차원들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기 위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13〉은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내부-내부와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집

단이 상담회기의 순조로움 차원에서 언어반응 처치별로 보여 주는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의 문제귀인양식과 언어반응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순조로움 차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음을 상기할때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외부-외부 집단의 경우 순조로움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의수준 $p < .01$ 에서는 기각되는 미미한 차이이다. 각 문제귀인양식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는 차원들을 살펴 보면,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은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절충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 그리고 지시적 반응순으로 높은 평정점수를 보여 주었다.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 깊이차원에

서 절충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 지시적 반응순으로, 또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절충적, 지시적, 비지시적 반응순으로 높은 평정점수를 보이고 있다.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은 모든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순조로움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 지시적 반응순으로 높게 평정하고, 깊이 차원과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 지시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순으로 높게 평정하였다.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각 문제귀인양식 집단별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상담회기 평정 차원들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의 분석 결과 이질적 집단은 <표14-a> <표14-b>, <표14-c>에 제시되었다. 먼저<표14-a>는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차원인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이 동질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각각 지시적 집단과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외부-내부 귀인양식 집단은 깊이 차원에서는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이 동질집단이며, 이들은 절충적 집단과는 각각 이질집단으로 밝혀졌다.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에만 동질적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반응들은 각각 비지시적 반응과는 이질적 집단으로 판명되었다. (<표14-b>참조).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집단은 순조로움 차원에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이 동질집단이며, 이들은 각각 지시적 집단과는 이질적 집단으로 나타났다. 깊이 차원에서는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이 각각 이질집단으로 판명되었다.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이 동질집단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반응들은 각각 절충적 반응과는 이질집단으로 판명되었다 (<표14-c>참조).

이상의 분석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상담회기의 평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2-2)는 모든 귀인양식집단이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만 모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내부-내부 귀인양식집

<표 14-a>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사후 검증(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

상담회기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긍정적 정서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표 14-b>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사후 검증(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

상담회기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깊이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긍정적 정서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표 14-c> 내담자 문제귀인양식별 상담자 언어 반응양식에 따른 상담회기 평정의 사후 검증(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

상담회기평정	언어반응	집단간 동질성 여부
순조로움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깊이	지시적, 비지시적	이질적 집단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긍정적 정서	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비지시적, 절충적	이질적 집단

단은 긍정적 정서 차원,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깊이 차원과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이 순조로움 차원, 깊이 차원,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이 경우만 가설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귀인양식집단들은 상담회기 차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정되어(가설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긍정적 차원에서

만 비지시적 반응, 절충적 반응이 지시적 반응보다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깊이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간에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절충적 반응에서 가장 높게 평정을 하였다. 반면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과 지시적 반응이 동일하게 비지시적 반응보다 높은 평정점수를 나타내었다.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는 순조로움 차원에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일 때가 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더 높게 평정하였으며, 깊이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 지시적 반응, 비지시적 반응순으로 높은 평정점수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일 때가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더 높게 평정을 하였다. 대체로 외부-내부,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들은 절충적 반응에서 가장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으며,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에 따른 차이를 별반 보이지 않는 차원들이 많았다.

논의

이 연구는 <가설1>과 <가설2>의 두 개의 가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가설1>과 <가설2>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몇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가설1>에서는 검증결과, 문제귀인양식에 따른 상담자 평정과 상담회기의 평정에는 대체로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이 가장 높은 평정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원인귀인과 해결귀인이 내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인 상담성공률 갖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iberMan, 1978; Chambliss & murray, 1979)들과 일치한다. 내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 평정이나 상담회기 평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귀인양식보다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carr, 1970; McLachlan, 1974; Bugental, 1978; Stensrud & Stensrud, 1981; Tracey,

1988)들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내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와의 인지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점과, 내적 귀인성향을 강조하고 지향하는 상담목표, 상담개입(intervention)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상담자의 문제귀인양식과 상담개입자체에 내포된 문제귀인양식이 내부지향적인 것일 때, 그에 대한 유사성으로 인해 내부지향적 문제귀인을 갖는 내담자들이 더 효율적인 상담결과를 얻는다는 전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상담자들은 내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을 지니고 있어서 상담자들의 문제귀인양식과 유사한,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을 지닌 내담자집단이 상담자나 상담회기에 대한 평정을 가장 높게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또 대체로 상담이 문제에 대해 내부귀인, 특히 해결귀인에 있어서는 거의 내부지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와 일치하는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와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가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보다 더 높게 평정한 것 또한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제의 원인귀인에 있어서 내부지향적 성향, 혹은 외부지향적 성향이 각각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상반된 연구결과(Barefoot & Girodo, 1972; Bootzin et al, 1976; Rodin & Langer, 1980)들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이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보다 상담자나 상담회기의 평정을 더 높게 한다고 하여 문제의 원인귀인에서도 내부지향적인 귀인성향이 영향을 더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내부-내부의 귀인양식집단보다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의 상담자 평정이나 상담회기 평정이 더 낮은 것은 상담자와 상담개입에 대해 해결귀인의 일치성뿐만 아니라 원인귀인의 일치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 평정 중 호감성에 대해서는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과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이 똑같이 낮은 평정을 하였는데, 이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제귀인이 유사하지 않을 때 내담자는 호감성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

우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상담자 평정, 상담회기의 평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자 평정의 근거가 되는 상담대본이 초기 상담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초기상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논의는 초기의 상담관계형성이 상담효율성의 지표가 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변화라고 했을 때,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해야 하며, 필요할 시에는 새로운 인지적 특성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신혜경, 1986) 상담자나 상담과정에 내포된 문제귀인성향과 내담자의 문제귀인성향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Edward & Edgerly, 1970; Landfield, 197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비유사성은 궁극적인 상담효율성을 위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귀인양식 유사성이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의 관계형성과 상담시간의 분위기에 대한 친숙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설2>는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이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상담효율성에 영향을 다르게 미칠 것이라는 가설인데,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은 상담자의 호감성 차원과 상담회기의 순조로움 차원에서는 상담자 언어반응과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차원들에서는 서로 상호작용효과를 보여 문제귀인양식과 상담자 언어반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담자나 상담회기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른 상담자에 대한 평정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담자의 호감성 차원에서는 모든 귀인양식 집단이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신뢰성 차원에서는 외부-내부 귀인양식 집단이, 전문성 차원에서는 외부-외부 귀인양식 집단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의 언어반응에 따른 상담회기의 평정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담회기의 긍정적

정서 차원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귀인양식집단들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깊이 차원에서는 외부-내부,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이, 순조로움 차원에서는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만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 상담을 할 때 내담자의 문제귀인양식에 따라 상담자가 언어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게 된다. 모든 문제귀인양식 집단은 상담자의 호감성과 상담회기의 순조로움에 대해서는 상담자 언어반응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이 차원들 중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호감성 차원의 경우를 보면, 모든 문제귀인양식 집단은 상담자가 지시적 반응들을 사용할 때보다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들을 사용할 때, 상담자에 대한 호감을 더 많이 갖게 된다. 또 순조로움 차원에서는 외부-외부 귀인양식 집단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집단 역시 지시적 반응보다는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일 때 상담이 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귀인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비지시적이거나 절충적인 언어반응이 지시적 반응보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데는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외부-외부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상담진행을 순조롭게 지각하는 데도 더 효과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지향적 문제귀인을 갖는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자가 지시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 Ivey(1977)나 Sue(1978a)의 주장이 상담자에 대한 호감을 지각하는 데, 또 외부-외부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이 순조로운 상담을 지각하는 데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문제귀인양식별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차이를 논의해 보면, 세 귀인양식집단 중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상담자의 호감성과 상담회기의 긍정적 차원으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들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보다 비지시적, 절충적 반응일 때 더 높은 평정점수를 보이고 있어, 내담자의 문제귀인이 내부지향적일 때 상담자의 비지시적 언

어반응에서 가장 상담이 효율적이 된다고 한 선행연구들(Sue, 1978a ; Ponce & Atkinson, 1989)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효율성의 여러 하위변인들 중 상담자의 호감성과 상담회기의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적용되고, 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또는 상담회기의 순조로움이라든가 깊이에 대해서는 언어반응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대한 부분적인 일치라고 할 수 있겠다.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은 상담자의 호감성과 상담회기의 긍정적 차원을 제외한 다른 차원들에 대해서는 언어반응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언어반응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적 귀인성향이나 내적 통제신념을 지닌 개인들이 외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한 학자들의 주장(Lefcourt & Wine, 1969)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Lefcourt 등(1969)은 내적 통제자들이 실험이나 검사상황에서 실험자의 지시, 암시, 또는 조작에 대해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 Thurber 등(1974)은 내적 통제자일수록 환경적 영향에 대해 반응을 덜 보이며, 자기지시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비지시적 언어반응이 내담자에게 부담이 되는 외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으며, 반대로 지시적 반응에도 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내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이 언어가 매개체인 상담자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담에 대한 동기가 약한 탓으로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해 충분히 동기화가 되어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찾아온 내담자들이 아닌, 가능하면 상담을 한번 받아 보고 싶다고 한 잠정적인 내담자들로 선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상담에 대한 동기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본 연구의 모든 문제귀인양식 집단에 적용이 된다.

외부-내부의 문제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성에서는 비지시적 반응과 절

충적 반응, 신뢰성 차원과 상담회기의 깊이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과 지시적 반응의 긍정적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에게는 차원에 따라 상담자의 호감성에 대해서는 절충적 반응과 함께 비지시적 반응의 효과도 있으며 상담회기의 긍정적 정서 차원에서는 절충적 반응과 함께 지시적 반응의 효과도 있지만, 대체로 상담자의 절충적 언어반응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있는 현상은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 상담자의 신뢰성이라든가 상담회기의 깊이 차원에서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이라는 양 극단의 반응이 함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는 비지시적 반응일 때보다 지시적 반응일 때 상담자를 더 신뢰한다고 한, Ivey(1977)나 Atkinsons 등(1978)의 경험적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문제원인의 외부지향성과 문제해결의 내부지향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양극의 반응보다는 절충적 반응을 더 선호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분류되는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목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는 역시 비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에서 상담자에 대한 호감을 더 갖게 되지만, 전문성 차원에서는 지시적 반응과 절충적 반응을 보이는 상담자를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절충적 반응에서 상담도 순조롭게, 깊이있게 지각하고 상담 후의 긍정적 정서감도 더 크게 가져,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의 경우에도 지시적 반응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선행연구들(Ivey, 1977 ; Sue, 1978a ; Atkinson et al, 1978 ; Ponce & Atkinson, 1989)과 불일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상담자에 대한 전문성을 지각하는 데는 상담자의 지시적 언어반응의 영향도 크고,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느끼는 데는 비지시적 반응도 절충적 반응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보여 주

지만, 외부-외부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에게도 대체로 절충적 언어반응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시적 반응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상담자의 전문성 차원에서만 인정되었는데, 이는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의 경우 이러한 외부의존적인 특성에 외적 영향력으로 지각될 수 있는 상담자의 지시적 언어반응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상담자를 권위있는 존재로 간주한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시적 반응은 절충적 반응과 유사한 영향력을 지니 전체적으로는 절충적 반응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외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에 대해서도 외부-내부의 귀인양식을 갖는 내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자가 다양한 언어반응 유목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부-내부 귀인양식집단과 외부-외부 귀인양식집단의 상담자나 상담회기의 평정에 대한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이들 집단은 여러 평정 차원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상담자 언어반응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고, 차이를 보여 주는 차원들에서는 대체로 상담자의 절충적 언어반응이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에 있어서 외부지향적 귀인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에 대해서는 지시적 반응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절충적 반응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담자 언어반응 양식을 세가지로 설정한 탓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선행의 연구들이 대부분 상담자의 언어반응 양식을 지시적 반응과 비지시적 반응이라는 서로 상반된 반응양식으로 이분하여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양반응양식 사이에 중간적 성격을 띠는 절충적 반응양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들의 연령이 청년층으로, 어느 정도 자아가 확립되고 주체적인 행동방식을 추구하는 청년기의 발달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외부지향적 문제귀인성향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청년기의 내담자들은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외부지향적 귀인성향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상담자의 지시적인 언어반응으로 인한 지시적, 주도적인 상담진행에는 거부감을 느끼며, 상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들 내담자들은 지시적 반응으로 치우친 상담자의 언어반응보다는 지시적 반응과 더불어 어느 정도는 내담자의 자발성을 촉진시키고, 상담진행의 주도권을 나누어 주는 상담자를 더 좋게 평정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회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담장면이 내담자 자신의 절박한 문제상황이 아닌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실험에 참여한 내담자들이 문제에 대한 내부귀인, 혹은 외부귀인의 인지적 특성들이 침예하게 표출될 수 있는 절실한 자신의 문제상황이 아닌 모의 상담장면을 투사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에 대해 덜 의존적이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통찰할 여유를 가졌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 신혜경(1986). 사례를 통한 상담과정의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 15집.
- 오경희(1986).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의 반응의도 전달이 내담자의 의도지각 및 상담의 효율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윤미(1987). 상담자의 반응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gel, J.(1971). *The radical therapist*, Ballantine Book Inc, New York.
- Archer, R., Bedell, J., & Amuso, K.(1980).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of locus of control and trait anxiety among inpati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 161-164.
- Atkinson, D.R., Maruyama, M., & Matsui, S.(1978). Effects of counselor race and counseling approach on Asian Americans' perceptions of counselor credibility and utility,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25, 76-83.
- Atkinson, D.R., Winzelberg, A., & Holland, A.(1985). Ethnicity, locus of control for family planning, and pregnancy counselor credi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417-421.
- Barak, A., & Lacrosse, M.B.(1975). Multidimensional perception of counselor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471-476.
- Barefoot, J. & Girodo, M.(1972). The misattribution of smoking cessation symptom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4, 358-363.
- Bootzin, R.R., Herman, C.P., & Nicassio, P.(1976). The power of suggestion : Another examination of misattribution and insomn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673-679.
- Brickman, P., Rabinowitz, V.C., Karuza, J., Cohn, E. & Kidder, L.(1982). Models of helping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37, 4, 368-384.
- Bugental, J.F.(1978). *Psychotherapy and process : The fundamentals of an existential-humanistic approach*, New York. AddisonWesley.
- Butcher, E., & Hevert, D.J.(1985). Locus of control similarity and counselor effectiveness,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103-108.
- Carr, J.E.(1970). Differentiation similarity of patient and therapist and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6, 361-369.
- Chambliss, C., & Murray, E.J.(1979). Cognitive procedures for smoking reduction : Symptom attribution versus efficacy attribu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91-95.
- Chandler, T.A., Wilf, F.M. & Planchard, S.K.(1981). Multiattributinal causality, a five cross-national samples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 2, June, 207-221.
- Connolly.S.G.(1980). Changing expectancies : A counseling model based on locus of control,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176-180.
- Corngan, J.D. & Schmidt, L.D.(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s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64-75.
- Edwards, B.C. & Edgerly, J.W.(1970). Effects of counselor-client congruence of counseling outcome in brie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313-318.
- Foon, A.E.(1986). Effect of locus of control on counseling expectations of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4, 462-464.
- Ivey, A.(1977). Toward a definition of the culturally effective counselor,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5, 296-302.
- Landfield, A.W.(1971).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therapy*, Chicago : Rand McNally.
- Lefcourt, H.(1966).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65, 206-220.
- _____ (1982). *Locus of control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2nd ed.). Hillsdale, NJ : Erlbaum.
- Lesser, W.M.(1961).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ing progress and emphatic understand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330-336.
- Lieberman, B.L.(1978). The role of mastery in psychotherapy : Maintenance of improvement and prescriptive change, In Frank, J.D., Hoehn-Saric, R., Imber, D.D., Lieberman, B.L., & Stone, A.R.(Eds.), *The effective ingredients of successful psychotherapy* (pp.35-72), New York : Brunner / Mazel.
- McLachlan, J.C.(1974). Therapy strategies, personality orientation and recovery from alcoholism, *Journal of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19, 25-30.
- Murdock, N.L. & Fremont, S.K.(1989). Attributional influences in counsel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 4, 417-422.
- Phares, E.J.(1976). *Locus of control in personality*, New York : General Learning Press.
- Ponce, F.Q., & Atkinson, D.R.(1989). Mexican-American acculturation, counselor ethnicity, counseling style, and perceived counselor credi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 203-208.
- Ridin, J., & Langer, E.J.(1980). Aging labels : The decline of control and the fall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36, 2, 12-29.
- Sue, D.W.(1975). Asian americans : social-psychological forces affecting thier life styles, In S. Picou & R. Campbell(Eds), *Career behavior of speccial groups* Columbus, Ohio : Charless, E. Merrill.
- _____ (1978a). *Worldview and cunseling*,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6, 458-462.
- _____ (1978b). *Eliminating culural oppression in counseling : Toward a general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419-428.
- _____ (1981a). *Counseling the culturaliy different : Theor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 Tracey, T.J.(1986). *INteractional correlates of premature tremin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784-788.
- _____ (1988).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congruence to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7, 131-146.

Abstract

The Effects of Clients' Attribution Styles for Problem and Counselor' Verbal Response Styles on Evaluation of Counseling Effectiveness

Hea Kyung Shin. Young Hee Lee

(Departmen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lients' attribution styles and their interaction with counseling verbal response styles on the evaluation of counselor's effectiveness. The subjects consisted of 180 Korean young people (age 18 to 25). The subjects were assigned to one of the attribution styles according to the ASQ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made by the researcher. One group was internal-internal attribution style for cause and solution of problems. The others were external-internal and external-external styles. They listened to analogous counseling session audiotaped and treated counselor's verbal response styles (directive, nondirective, eclectic), and then evaluated the counseling effectiveness. For the evaluation of the counseling effectiveness, the CRF-S (Counselor Rating Form-Short) and the SEQ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modified for Koreans were us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univariate and multivariate F test. The results showed the effects of clients' attribution styles. The internal-internal clients evaluated better the counselor and the session than the external-internal clients, who in turn evaluated them better than the external-external clie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clients' attribution styles and the counselor's verbal response styles. These effects appeared partially in subdimensions of the CRF-S and the SEQ. The internal-internal clients evaluated better the counselor's attractiveness and the positivity of session in nondirective or eclectic response style than directive response style. They evaluated better only the counselor's attractiveness in nondirective response style than the others. The external-internal and external-external clients generally evaluated better the counselor and the session in eclectic response style than the others. The external-internal clients evaluated better the positivity of session and the external-external clients evaluated better the counselor's expertness in eclectic and directive response styles than nondirective response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some considerations that the internal-internal counselors t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attribution styles between the counselors themselves and the external-oriented clients and that the counselors try to use the appropriate verb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clients' attribution styles.